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우 주 영**

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 교수

《요 약》

이타적인 행동과 함께 부모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행동은 매우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받아드려져 왔다. 그러나 자신의 내적 욕구가 배제되면서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의 부모화(parentification) 경험이 정신병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314명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면성인성검사(MMPI)를 실시하여 전문가들이 정상 집단(236명)과 임상집단(78명)으로 선정하여 나누었다. 연구도구는 Jurkovic & Thirkield(1999)에 의해 개발된 FRS-A(Filial Royalty Scoring-Adult)을 강지희(2008)가 수정, 보완한 것과 김영환 등(1989)에 의해 제작된 MMPI를 사용하였다. 연구분석은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부모화 경험(도구적, 정서적, 불공평)이 정상집단과 임상집단간의 정신병리(성격, 신경증, 정신병)에 미치는 예측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정상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신경증적, 정신병적 측면에 대해 설명력이 매우 저조하며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상집단에서 불공평 부모화가 정신병적 측면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Pa, Sc 척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이후의 정신병적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적응적인 부모-자녀간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도구적, 정서적, 불공평, 부모화, 정신병리

I. 서론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 초기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이 초기 경험이 이후의 성격형성과 정신병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 왔으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그 둘 간의 경계(boundary)는 건강한 가족과 구성원을 유지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부적절하거나 또는 침해되거나 파괴될 때 가족 구성원의 발달과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 체

* 본 논문은 2008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wjy0207@kornu.ac.kr)

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parental child(부모다운 아이)”은 부모-자녀 간의 경계가 침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Minuchin, Montalvo, Guerney, Rosman, & Schumer, 1967; Kerig, 2005). 최근에는 “parentification(부모화)”라는 용어로서 정서적 또는 발달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어른의 역할 또는 부모의 책임을 떠맡는 아이들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Stein, Riedel, & Rotheram-Boras, 1999).

역할이 전도된 부모-자녀 관계(parental-child role reversal)와 부모화가 나타나면 아이는 부모의 물리적 또는 정서적 욕구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욕구는 희생하게 된다(Alexander, 2003; Boszormenyi-Nagy & Spark, 1973)고 보았다. 또한, Mika, Bergner, and Baum(1987)은 아동과 청소년의 가족 상호작용 패턴이 그 사회문화에 맞게 정상적으로 주어져야 하지만 부모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부모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부모화는 아동의 거부(neglect)의 한 형태로 전통적으로 빈약한 대인관계와 애착의 문제를 보이며 이후에 성인기가 되어서도 자아의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Chase, 1999; Jurkovic, Morrell, & Casey, 2001; Robinson, 1999; West & Keller, 1991).

이렇듯 부모화에 대한 정의는 이론적 배경과 강조되는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인 요인은 아이의 부모역할, 역할 전도, 전반적인 경계의 파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Chase, 1999; Hooper, 2007; Jurkovic, 1998; Karpel, 1967; Minuchin, Montalvo, Guerney, Rosman, & Schumer, 1967).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들은 말은 책임의 수행 범위에 따라 세 가지 부모화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부모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구적 부모화(instrumental parentification)는 설거지, 청소 세탁, 심부름, 아픈 부모 및 동생 돌보기, 요리하기 등 기능적으로 가족원의 일을 돕는 행위이다. 이것은 다소 성취감과 도움을 주었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관계형성, 가족 간의 분화, 나이에 맞는 행동, 학업추구, 자아 존중감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격형성에 방해가 가져온다(Chase, Deming, & Wells, 1998; Jones & Wells, 1996; Olson, & Gariti, 1993; Valteau, Bergner, & Horton, 1995).

정서적 부모화(emotional parentification)는 가족 구성원의 기분을 맞추고 위로하여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이것은 가족불안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한 형태이며 자신의 심리적인 공허함(void)을 채우기 위해 부모의 친구 또는 정신적 지지자가 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Barnett & Parker, 1998; Earley & Cushway, 2000).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부모와 형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게 되어서 발달의 저해 요인이 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성인기가 되어서도 대인관계와 미래의 정서적 기능에 방해가 가져오게 된다(Barnett & Parker, 1998; Earley & Cushway, 2000; Garbarino, 1977; Jurkovic, Thirkied., & Morrell, 2001).

불공평 부모화(unfairness parentification)는 보살핌이 상호 호혜적이지 않고 일방적

으로 주기만 하여 불공평함과 모순 속에서 실존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Chase, 1999; Jurkovic, Thirkied., & Morrell, 2001). 스스로를 보살피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상호보완성이 깨어지게 되면,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기에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과도한 책임감, 불안, 불신감, 분노, 화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영, 김태연, 2004; 김정미 외, 2006; Jurkovic, Thirkied., & Morrell, 2001).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며, 자기주장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느끼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지희, 2008; 윤혜례, 2003; Jurkovic, Thirkied., & Morrell, 2001).

부모화의 현상에 대한 연구 동향은 애착이론과 가족체계이론, 둘 다를 통합한 이론으로 부모화의 부정적 정서를 이해하는 잠재적인 틀을 제공한다.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은 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부모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은 부모화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명확함을 준다.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theory)은 부모화 과정이 발생하고 이후 성인기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기제(mechanism)를 논의할 수 있다. 제시된 이론적 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모화 현상을 잠재적으로 폭넓게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화된 아이는 돈을 벌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정서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안정감, 충고, 보호 등을 제공하는 돌봄의 역할을 한다(Jurkovic, 1997; Mika et al., 1987). 비록 부모화가 책임감 있는 행동과 자원의 풍부함(resourcefulness)의 기여 욕구를 촉진시킬지라도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은 내면화된 정서적 스트레스, 외현화된 행동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문정택, 2006; Earley & Cushway, 2002; Jurkovic et al, 2001)을 가져온다. 심지어 어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이도 있으며 또래에 비해 조숙함을 특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Alexander, Teti, & Anderson, 2000; Green & Jurkovic, 2002). 부모화는 부모의 질병, 정신병리, 이혼, 부부갈등 등 가족의 역기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Barnett & Parker, 1998; Earley & Cushway, 2002; Mayseless, Bartholomew, Henderson, & Trinke, 2004; Frtzgerald, Schneider, Salstrom, Zinzow, Jackson, & Fossel, 2008, Jurkovic, 1997). 게다가 성학대 경험은 부모의 정신병리, 약물남용, 배우자 폭력 등의 가족 역기능의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Barnett & Parker, 1998; Chase, 1999; Gallant, Gorey, Falland, Perry, & Ryan, 1998; Long & Jackson, 1994; Stein, Riedel, & Rothermam-Borus, 1999) 낮은 자존감과 내면화된 문제, 대인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신주연, 2003; El-Sheikh & Flanagan, 2001)이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걱정 수준의 배려와 가치라기보다 오히려 내면적 갈등을 야기하여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와 정신병리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Davies, 2002; Paris & Frand, 1989;

Lelley et al., 2007)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보면 성장기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할수록 부모를 도구적, 정서적으로 더 많이 보살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과도한 초점과 자기 감정을 무시하기에 불공평한 감정을 많이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심리적 역기능과 정신병리를 일으킨다는 단일 차원의 보고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하위 영역별로 부모화 경험에 따라 성인기 이후의 정신병리를 다층적이고 심도 깊게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면성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이하 MMPI)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MMPI는 임상장면에서 정신병을 판별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적, 신경증적, 정신병적 경향성 등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다(양익홍, 최명구, 1997; Merrit & Balogh, 1994). MMPI의 내용척도의 상승을 분석하여 성격장애 척도, 신경증 척도, 정신병 척도, 불명확성 척도로 구분하였다(양익홍, 최명구, 1997; 양익홍, 이흥표, 최명구, 1997; Merrit & Balogh, 1994; Lacher, 1974). 여기서 Pd(반사회성), Mf(남성-여성성), Si(내향성) 척도는 성격적 경향, Hs(건강염려증), D(우울증), Hy(히스테리), Pt(강박증)척도는 신경증적 경향, 그리고 Pa(편집증),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는 정신병적 경향성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기준에 의거하여 MMPI 프로파일을 분석하였고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성인기의 성격적, 신경증적, 정신병적 특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설명하는지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성인 이후의 정신병리를 어느 정도 예측한 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이후의 성격적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이후의 신경증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이후의 정신병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월 3월부터 6월말까지 N 대학교 1학년 학생중 본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314명을 대상(정상집단 236명; 임상집단 78명)으로 부모화 설문지(강지희, 2008)와 MMPI(김영환 등, 1989)를 실시하였다. MMPI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집단은 Merritt & Balogh (1994)와 김중술 (1996)의 기준을 참조하여 상담심리학 박사 1명과 심리학 박사 과정 2명의 전문가들이 선정하였다. 1)명확한 정상 프로파일은 모두 65점 이내, 35점 이상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였다. 2)임상적으로 비정상적 프로파일은 10개의 내용척도 중 최소한 하나의 T점수가 70점 이상, 30점 이하의 프로파일로 정의하였다. 3)불명확한 프로파일은 한두가지 척도의 T점수가 60점 이상이지만 70점 이하인 프로파일은 전문가의 협의에 의해 나누었다.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 욕구가 강한 반면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이 증가된다. 또한 아직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새로운 인관관계를 통해 성장기 자신의 행동양식을 반추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중 정상집단은 236명(남 53명, 여 183명), 일반집단 78명(남 24명, 여 54명)이며 자세한 연구대상 집단의 배경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특성(N=314)

변인	구분	정 상 집 단 (n=236)	임 상 집 단 (n=78)
성별	남	53(22.5%)	24(30.8%)
	여	183(77.5)	54(69.2%)
나이		18.4(평균)	18.9(평균)
형제수	외동	11(4.7%)	6(7.7%)
	2명	165(69.9%)	49(62.8%)
	3명	56(23.7%)	19(24.4%)
	4명	4(1.7%)	4(5.1%)
순위	외동	11(4.7%)	6(7.7%)
	첫째	126(53.4%)	42(53.8%)
	가운데	26(11.0%)	11(14.1%)
	막내	73(30.9%)	19(24.4%)
	매우 잘	1(0.4%)	1(1.3%)
가정형편	잘	18(7.6%)	7(9.0%)
	보통	192(81.4%)	52(66.7%)
	어려운	25(10.5%)	18(23.1%)
이별경험	있음	50(21.2%)	29(37.2%)
	없음	186(78.8%)	49(62.8%)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PQ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토대로 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FRS-A(Filial Royalty Scoring-Adult)를 신주연(2003)과 조은영(2004)이 번안한 내용을 토대로 강지희(2008)가 수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자가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의 부모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의 부모화와 관련된 세 하위 척도는 제외하였다. 과거의 부모화의 하위요인으로는 도구적(기능적으로 가족원의 일을 돕는 것), 정서적(정서적으로 부모 및 가족원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 불공평성(보살피는 행동에서 주고받음이 공평하지 않은 정도)차원을 사용하였다. 도구적 부모화와 관련된 문항의 예는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형제들을 돌볼 것을 기대한다” 등이고, 정서적 부모화의 문항의 예는 “식구들 중에 누군가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걱정이 된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에서 불공평성을 지각하는 문항의 예는 “식구들은 나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 등이 있다. 부모화를 각 30문항 중 예비조사 시 신뢰도가 낮게 나온 3문항을 제외한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번안과정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4점 Likert 방식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Jurkovic 등(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본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4-.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68 .60 .66이고, 전체신뢰도 계수는 .73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도구적 부모화	9	1, 3, 6, 8, 13, 17*, 20, 24, 26	.68
정서적 부모화	9	2, 5, 9, 12, 15, 16, 21, 23, 27	.60
불공평 부모화	9	4, 7, 10, 11, 14*, 18, 19*, 22, 25	.66
전체	27		.73

*역 채점 문항

MMPI는 경험에 기초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임상장면에서 정신병리를 감별하고 정서적, 성격적 문제를 탐지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MPI척도는 김영환(1989)등이 재표준화한 566문항으로 된 신판으로 제작된 것이며 OMR방식으로 채점되었다. 이것은 정신과적 진단을 위한 분류 검사이지만 정상인의 행동설명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반적 성격특성에 관한 유추도 가능하다(김중술, 1996)고 본다. 미국에서 기존의 MMPI에 타당도 척도 추가,

재구성된 임상척도, 내용척도, 새로운 보충척도 등을 보완하고 개발하여 MMPI-2(1989)가 출간되었고, 2005년에 한국판 MMPI-2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원래의 검사와 동일한 타당도 척도와 임상적 척도체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신병리적 경향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험자는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하며 각 반응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10가지의 임상척도와 그 사람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4가지의 타당도 척도에 따라 채점된다. 국내판 MMPI의 신뢰도에 관하여 임영란과 안창일(1997)은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가 정상인 집단에서 .68-.78, 대학생집단에서 .65-.87, 정신과 환자집단에서 .74-.92의 분포를 보인 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3. 연구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성장기 부모화 경험(하위집단별)이 성인 이후의 정신병리(성격적, 신경증적, 정신병적 측면)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Correlation)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신병리(성격적, 신경증적, 정신병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임상척도만을 분석 자료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4개의 타당도 척도는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을 나눌 때 참조자료로 활용하였다.

III. 결과

정상집단과 임상집단간의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리(성격적, 신경증적, 정신병적측면)에 있어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먼저, <표 4>에서 제시한 정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성격적인 측면(Pd, Mf, Si)에서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구적 부모화는 Mf 척도($r=.29$, $p<.05$)에서만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공평 부모화에서는 Pd 척도($r=.23$, $p<.01$), Si 척도($r=.18$, $p<.01$)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적 부모화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정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신경증적인 측면(Hs, D, Hy, Pt)에서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구적 부모화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정서적 부모화는 Pt 척도($r=.21$, $p<.01$)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불공평 부모화에서는 D 척도($r=.14$, $p<.05$), Pt 척도($r=.25$, $p<.01$)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셋째, 정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정신병적인 측면(Pa, Sc, Ma)에서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구적 부모

화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정서적 부모화에서는 Pa 척도($r=.24, p<.01$), Ma 척도($r=.19, p<.01$)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불공평 부모화에서는 Pa 척도($r=.19, p<.01$), Ma 척도($r=.19, p<.01$)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표 5>에서 제시한 임상집단에서 첫째,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성격적인 측면(Pd, Mf, Si)에서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구적 부모화 Mf 여성척도($r=-.33, p<.05$)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부모화에서도 Mf 여성척도($r=-.40, p<.01$)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공평 부모화에서는 Pd 척도($r=.49, p<.01$), Mf 여성척도($r=-.39, p<.01$), Si 척도($r=.28, p<.05$) 모두에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신경증적인 측면(Hs, D, Hy, Pt)에서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구적 부모화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정서적 부모화에서는 Pt 척도($r=.29, p<.01$)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불공평 부모화에서는 Hs 척도($r=.23, p<.05$), D 척도($r=.32, p<.01$), Hy 척도($r=.25, p<.05$), Pt 척도($r=.36, p<.01$)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표 4> 정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정신병리와의 상관관계($n=236$)

	Hs	D	Hy	Pd	Mf 남 여	Pa	Pt	Sc	Ma	Si
도구적부모화	.07	-.05	.00	.01	.29* .02	.07	.10	-.06	.05	-.04
정서적부모화	.03	.05	-.02	.05	.14 .01	.24*	.21**	-.00	.19**	-.02
불공평부모화	.04	.14*	.05	.23**	.23 .05	.19**	.25**	.03	.19**	.18**

* $P<.05$, ** $P<.01$

Hs->건강염려증 D->우울증 Hy->히스테리 Pd->반사회성 Mf->남성-여성성 Pa->편집증 Pt->강박증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 Si->내향성

<표 5>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정신병리와의 상관관계($n=78$)

	Hs	D	Hy	Pd	Mf 남 여	Pa	Pt	Sc	Ma	Si
도구적부모화	.11	-.04	.25	-.16	.26 -.33*	.11	.04	-.09	.15	.04
정서적부모화	.18	.18	.14	.16	-.15 -.40**	.26*	.29**	.24*	.14	.18
불공평부모화	.23*	.32*	.25	.49**	-.24 -.39**	.38*	.36**	.38*	.18	.28*

* $P<.05$, ** $P<.01$.

Hs->건강염려증 D->우울증 Hy->히스테리 Pd->반사회성 Mf->남성-여성성 Pa->편집증 Pt->강박증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 Si->내향성

셋째,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정신병적인 측면(Pa, Sc, Ma)에서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구적 부모화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정서적 부모화에서는 Pa 척도($r=.38, p<.01$), Sc 척도($r=.38, p<.01$)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불공평 부모화에서는 Pa 척도($r=.38, p<.01$), Sc 척도($r=.38, p<.01$)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집단에서 특히 불공평 부모화에서 성격적 측면(Pd, Mf, Si)과 신경증적 측면(Hs, D, Hy, Pt) 모두에서 공통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집단과 임상집단간의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먼저, <표 6>에서 제시한 정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성격적 측면(Pd, Mf, S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Pd 척도($F=5.2, p<.01$), Si 척도($F=4.0, p<.01$)에서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d 척도 10%, Mf 남성척도 10%, Si 척도 4%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6> 정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n=236$)

	Hs	D	Hy	Pd	Mf 남 여	Pa	Pt	Sc	Ma	Si
도구적부모화	.07	-.10	.00	-.02.	.26 .01	-.04	.00	-.08	-.04	.08
정서적부모화	-.01	-.01	-.09	-.11	-.09 -.02	.22**	.09	-.00	.13	-.10
불공평부모화	.03	.18*	.11	.30*	.16 .06	.07	.19*	.05	.12	.26*
R^2	.00	.03	.00	.06	.10 .00	.06	.07	.00	.04	.04
F	.51	2.4	.68	5.2**	1.81 .18	5.4**	6.0**	.55	4.0**	4.0**

* $P<.05$, ** $P<.01$.

Hs->건강염려증 D->우울증 Hy->히스테리 Pd->반사회성 Mf->남성-여성성 Pa->편집증 Pt->강박증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 Si->내향성

그리고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불공평 부모화에서는 Pd 척도($\beta=.30, p<.001$)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Si 척도($\beta=.26, p<.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정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신경증적 측면(Hs, D, Hy, P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Pt 척도에서만 ($F=6.0, p<.01$)에서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Hs 척도와 Hy 척

도에서는 설명이 0%였고, D 척도 3%, Pt 척도 7%의 저조한 설명력을 보였다.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불공평 부모화에서 D 척도($\beta=.18$, $p<.05$), Pt 척도($\beta=.19$, $p<.05$)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적 측면(Pa, Sc, M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Pa 척도($F=5.4$, $p<.01$), Ma 척도 ($F=4.0$, $p<.01$)에서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c 척도는 설명력이 0%였고, Pa 척도 6%, Ma 척도 4%의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도구적 부모화와 불공평 부모화에서는 정신병적 측면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고, 정서적 부모화에서 Pa 척도($\beta=.22$, $p<.01$)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신경증적 측면과 정신병적 측면의 설명력이 매우 저조하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공평 부모화가 Pd 척도(성격적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n=78$)

	Hs	D	Hy	Pd	Mf 남 여	Pa	Pt	Sc	Ma	Si
도구적부모화	.05	-.13	.28	-.24*	.32 -.04	.02	-.08	-.22	.12	-.02
정서적부모화	.02	.01	-.05	-.17	-.12 -.12	.01	.12	.09	-.01	-.00
불공평부모화	.20	.34*	.28	.67***	-.25 -.26	.36*	.30*	.37*	.16	.29
R^2	.06	.12	.06	.34	.16 .14	.14	.14	.18	.04	.08
F	1.58	3.42*	1.69	13.09***	1.34 4.0*	4.25***	4.20***	5.65***	1.21	2.22

* $P<.05$, ** $P<.01$, *** $P<.001$

Hs->건강염려증 D->우울증 Hy->히스테리 Pd->반사회성 Mf->남성-여성성 Pa->편집증 Pt->강박증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 Si->내향성

먼저, <표 7>에서 제시한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성격적 측면(Pd, Mf, S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Pd 척도($F=13.09$, $p<.001$), Mf 여성척도($F=4.0$, $p<.05$)에서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d 척도 34%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Mf 남성-여성척도에서도 각각 16%, 14%, Si 척도 8%의 순으로 설명력을 보였다. 불공평 부모화에서 Pd 척도 ($\beta=.67$, $p<.001$)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둘째,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신경증적 측면(Hs, D, Hy, P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D 척도($F=3.42$, $p<.05$), Pt 척도($F=4.20$, $p<.001$)에서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t 척도 14%, D 척도 12%, Hs 척도 6%, Hy 척도 6% 순으로 설명력을 보였다.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는 신경증적 측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며, 불공평 부모화에서 D 척도와 Pt 척도만이 각각 ($\beta=.34$, $p<.05$), ($\beta=.30$, $p<.05$)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적 측면(Pa, Sc, M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Pa 척도($F=4.25$, $p<.001$), Sc 척도($F=5.65$, $p<.001$)에서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c 척도는 18%, Pa 척도는 14%의 순으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는 정신병적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불공평 부모화에서 Sc 척도($\beta=.37$, $p<.05$), Pa 척도($\beta=.36$, $p<.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과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임상집단에서 불공평 부모화가 정신병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Pa 척도와 Sc 척도에서 높은 모델의 적합도, 설명력 그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이후의 성격적인 측면(Pd, Mf, Si)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정상집단에서는 불공평 부모화만이 Pd 척도에서 가장 큰 설명력과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집단에서도 불공평 부모화에서 Pd 척도에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모두 불공평 부모화에 Pd 척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성격 경향성 내지는 환경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감과 적대감을 주로 반영하는 Pd 척도가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부모화의 경험 중에서 불공평 부모화를 많이 경험한다고 느낄수록 대인관계에서 분노, 화 등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영, 김태연, 2004; 김경미 외 2006; Boszormenyi-Nagy & Spark, 1973; Jurkovic, Morrell, & Casey, 2001)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불공평 부모화는 부모와 갈등적 독립과 자기주장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경미 외, 2006). 또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양가감정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자기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 보다는 불공평 부모화가 가장 자기감정을 조절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고 내면의 분노와 화에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는 불공평 부모화 뿐만 아니라 정서적 부모화 모두에서 우울, 불안 등에 영향을 주는 것(강지희, 2008)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과 임상집단 모두 불공평 부모화가 Pd 척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d 척도는 현재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내지는 갈등의 양과도 많은 관련을 갖고 있기도 하여 이와 관련된 자기주장이나 적대적인 경향성의 증가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반사회적 경향성을 갖는 사람들 중 다수가 정신병적 소인을 갖고 있거나 정신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Kaplan, Sadock & Grebb, 1994) 유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Pd 척도는 자기주장성이 기본 차원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성장기에 가족을 위해 물리적인 또는 정서적인 노력으로 인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 보다는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과 감정이 정서를 조절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절의 실패는 규칙을 위반한다든지, 때로는 범법 행위를 하고서도 반성을 하지 않는 등의 사회적인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서 Pd 척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반사회적인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다는 연구(공정식, 이수정, 이민식, 2007)가 대부분이다. 또한, Pd 척도는 반사회적 성격 경향성 내지는 환경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감과 적대감을 반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병리에 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양익홍, 이흥표, 최명구, 1997)가 많다. 그 예로 분열성 집단에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되어 있으면서도 높은 적대감과 반항심을 갖고 있어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적응에 실패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적응의 실패는 신경증 증상과 정신병으로 발현하게 하고 발병하지 않더라도 결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족과 부모자녀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기 보다는 즉시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정상집단에서 속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Pd 척도 즉 자기주장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때로는 폭발시키는 형태로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Mf 척도는 성 정체감,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특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Si 척도는 사회적 내향성과 고립경향을 측정하는 것인데 본 연구결과 이 두 척도에는 부모화 경험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이후의 신경증적인 측면(Hs, D, Hy, Pt)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정상집단에서는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

모화가 신경증적 측면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불공평 부모화에서 D, Pt 척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임상집단에서도 불공평 부모화에서만 D, Pt 척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불공평 부모화가 D, Pt 척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 척도는 스트레스 하에서 자신의 행동에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죄책감에 잘 빠져서 우울증을 겪게 된다. 또한 Pt 척도는 자신의 책임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불안해 할 위험성이 있어 강박증을 겪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분열형 성격 대학생들에서 우울감과 심리적 고통 및 불편감을 반영하는 D, Pt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는 결과(양익홍, 이홍표, 최명구, 1997)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보여진다.

Pt 척도는 주로 회피성 성격장애, 우울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가 함께 동반하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이동우 외, 2001) 나타나고 있어서 강박증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강박증 환자가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하며 정서적으로 높은 불안을 성격적으로 회피성 또는 의존성 특성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강박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격장애를 동반하느냐의 여부는 이후의 치료방향과 계획수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강박증은 이후의 정신병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불공평하고 차별받았다는 생각은 정신병리에 심각한 강박증과 성격장애를 유발하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본다.

특히 성학대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을 보이고 자신이 정신적으로 오염(mental pollution)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씻는 행동을 충동적으로 한다(Cougle et al., 2008)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경계가 파괴되어 왜곡되었을 때 자신이 갖는 죄책감과 혐오감은 오염되어 있다는 감정과 씻는 행동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분열형 성격 대학생들 중 1/3이 우울, 과염려, 불안 및 사회적 위축과 고립 같은 분명한 신경증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양익홍, 이홍표, 최명구, 1997)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불공평 부모화가 이후의 신경증적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특히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심리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과 정신병리의 위험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건강한 민감성과 자기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 부모화 모두에서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강지희, 2008),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불공평 부모화에서만 우울증과 강박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현실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 불특정한 신체적 증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요구사항이 많거나, 감정이나 행동과 관련되는 신체적 증상 등 건강염려증적 관심을 반영하는 Hs, Hy 척도는 본 연구결과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이후의 정신병적인 측면(Pa, Sc, Ma)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정상집단에서는 Sc 척도의 설명력이 0% 였으며 나머지 정신병적 척도에도 저조한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정서적 부모화에서만 Pa 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집단에서는 Sc, Pa 척도에서 높은 설명을 보였으며 특히, 불공평 부모화만이 Pa, Sc 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는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정상집단에서는 정신병적인 측면에서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임상집단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정신병이나 정신분열병에서 가장 빈번하게 상승하는 Pa, Sc 척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환상이나 공상을 통하여 현실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비판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타인의 행동을 자신과 연관시킬 가능성(김중술, 1996)이 많기 때문에 심리내적인 고통과 자신을 방어할 현실적 능력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증은 위협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선택적 편향이 강해서 균형 있는 상식적인 판단이 어렵고 부정적 자기 개념과 낮은 자존심 및 방어적 경계심이 특징적(이훈진, 1999)이어서 원활한 대인관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편집증은 기질과의 관련성이 적고 양육방식이나 가족관계 등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Cloninger, 1999),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영향(이현우, 이훈진, 2006)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편집증적 증상은 피해의식과 대인관계에서 민감성과 긴장, 예민한 기분이나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예민성, 도덕적 미덕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며, 타인의 정직성이나 신뢰로움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나타내는 순박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Nichols, 2001). 이 순박성은 타인에 대해 낙관적이고 순진한 태도를 가진 반면, 기만당했다거나 부당하게 취급받았다고 느꼈을 때 용서하기 힘들고 경직적인 태도가 강하다고 연구결과(Graham, Ben-Porath, & McNulty, 1999)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감정과 생각이 정신병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과 일치한다.

살인범의 MMPI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에서 살인범들이 임상척도들 중에서 Pa, Sc, Ma 척도가 일반 범죄자들보다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Blackburn, 1968; Cornell, Miller & Benedek, 1988)와 컴퓨터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 간에 Pa, Sc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박순천, 백경임, 2005)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한다. 편집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높았다(이훈진, 2002)고 한다. 피해망상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믿음은 가장 적게 느끼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피해망상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관련성은 초기의 의사소통 장애와 가족 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정신분열증과 편집성 성격장애와 관련된다고(Goldstein, 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의 과도한 억압과 차별적 감정으로 인한 불공평 부모화 경험은 가족 간의 부정적 의사소통과 응집력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어 건강한 민감성과 자기비판의 한계를 가지며 이후에 매우 심각하게 현실 검증력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구적 부모화 또는 정서적 부모화 경험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불공평함의 경험 여부가 정신병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평함은 부모화 경향의 역기능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내면적인 갈등과 정신병리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화 경험 중에서도 도구적, 정서적 희생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하지만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불공평 부모화는 성격적, 신경증적 병리에 일관된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적 측면에서는 임상집단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여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부모화된 경우일수록 부모와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의 가족관계에서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희생과 차별에 대한 감정을 성격적, 신경증적 측면을 넘어서 정신병적 측면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도구적, 정서적 부모화가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했으나 불공평 부모화는 성격적, 신경증적, 정신병적 측면 모두에서 정신병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장기 부모화의 경험은 매우 다양한 가족간의 역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 경계가 파괴되거나 이후의 성격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많은 심리치료자들은 부모화 된 아이나 성인을 치료하거나 진단할 때 법적인 대응과 치료적 개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모화의 경험은 가족의 맥락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왜 그리고 어떻게 부모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의 역동과 체계에 초점을 두어 심리치료와 진단이 이루어져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모 양육능력을 키워주워 준다는지 이혼한 부모를 지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임상에서 역할전도(role reversal)와 가족 간의 경계의 해체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화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에게는 가족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으로 결손된 능력을 보상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치료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곡되었던 행동을 가족 체계 내에서 나이에 적합한 역할로 새롭게 실현하고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치료자는 치료적 관계, 라포형성, 가족 간의 역동에 대한 자료를 탐색을 통해 가족의 강점과 약점을 미시적, 거시적, 외체계(exo-system) 수준으로 통합(Cicchetti, Toth, & Rogosch, 2000; Marotta, 2002; Moos, 2002)해서 파괴적

부모화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화 경험이 있는 개인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족 체계 이론과 애착이론 등이 최근의 문헌에 소개(Alexander, 1992, 2003; Byng-Hall, 1995, 2002; Hooper, 2007; Marotta, 2003)되고 있어 이러한 이론들의 통합이 치료의 실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결과에서는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형제서열이나 가족 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변인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집의 대상이 단일지역의 한정된 수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면, 부모화의 개념이 동양적 문화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며 개인보다는 가족을 우선시 하는 것을 좋은 성인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차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화 경험과 정신병리 사이의 매개변수를 탐색하는 다양화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각 개별 사례마다 MMPI 프로파일 상승과 코드 타입 등 통합하여 분석하지 않고 정신병적 소인이 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신경증적, 정신병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력의 조사와 가족 면담 등의 질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지희 (2008).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정식, 이수정, 이민식 (2007). 교정시설내 살인범들의 MMPI 점수에 근거한 규율위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79-496.
- 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2006).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 집단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9-32.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1989). **다면적 인성 검사 실시요강**. 서울 : 한국가이던스.
- 김중술 (1996).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임상적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정덕 (2006).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 효능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순천, 백경임 (2005). 컴퓨터 중독청소년의 MMPI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3(7), 1-21.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수치심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익홍, 최명구 (1997). 대학생 정신병 경향성 집단의 다면적 인성검사 반응 특성. **교육심리연구**, 11(2), 255-289.
- 양익홍, 이홍표, 최명구 (1997). 분열형 성격 대학생의 MMPI 반응특성. **교육심리연구**, 11(3), 123-145.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6), 896-903.
- 이동우, 강웅구, 류인균, 정도연, 조맹제, 우종인, 김용식, 권준수 (2001). 강박증 환자에서의 인격장애

- 공존병리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3), 434-441.
- 이현우, 이훈진 (2006). 경계형, 외현형 편집증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임상**, 25(2), 449-465.
- 이훈진 (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편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8(1), 1-15.
- 이훈진 (2002).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4), 791-807.
- 윤혜례 (2003). 알코올 중독자 자녀와 비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부모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영란, 안창일 (1997).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1), 131-150.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Alexander, P. C., Teti, L., & Anderson, C. L. (2000). Childhood sexual abuse history and role reversal in par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24(6), 829-838.
- Alexander, P. C. (2003). Parent-child role reversal: Development of a measure and test of an attachment theory model. *Journal of Systemic Therapies*, 22, 31-43.
- Barnett, B. & Parker, G. (1998). The parentified child: Early competence or childhood deprivatio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Review*, 3(4), 146-154.
- Blackburn, R. (1968). Personality in relation to extreme aggression in psychiatric offender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14, 821-827.
- Boszormenyi-Nagy, I., &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Hagerstown, MD: Harper & Row.
- Byng-Hall, J. (1995). *Rewriting family scripts*. New York: Guilford.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hase, N.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N. Chase (Ed.), *Burdened children*(pp.3-33). New York: Guilford.
- Chase, N., Demming, M., & Wells, M. (1998). Parentification, parental, alcoholism, and academic status among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5, 105-114.
- Cicchetti, D., Toth, S., & Rogosch, F. (2000). The Developmental psychological wellness in maltreated children. In D.Cicchetti, J. Rappaport, I. Sandler, & R. Weissberg(Eds.). *The promotion of welln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pp. 395-426).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Cloninger (1999).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Washington, DC:APA.
- Cornell, D., Miller, C., & Benedek, E. (1988). MMPI profiles of adolescents charged with homicid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6, 401-407.
- Cougle, J. R., Lee, H. -J., Horowitz, J. D., Wolitzky-Taylor, K. B. & Telch. M. J. (2008).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pollution and OCD symptom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9, 340-353.
- Davies, P. T.(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Earley, L., Cushway, D. (2002). The Parentified Child..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2), 1359-1045.
- El-Sheikh, M., & Flanagan, E. (2001). Parental problem drinking and children's adjustment: Family conflict and parental depression as moderators of ris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419-432.

- Frtzgerald, M. M., Schneider, R. A., Salstrom, S., Zinzow, H. M., Jackson, J. & Fossel, R. V. (2008). Child sexual abuse, early family risk, and childhood parentification; pathway to curren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320-324.
- Gallant, W. A., Gorey, K. M., Falland, M. D., Perry, J. L., & Ryan, P. K. (1998). The association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ith parenting problems among alcoholic couple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24, 119-128.
- Garbarino, J. (1977).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conceptual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9, 721-735.
- Goldstein, M. J. (1990). Family relations as risk factors for the onset and course of schizophrenia.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J.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al of psychopat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 M. L. & Jurkovic, G. J. (2002, November). *The impact of family functioning on trauma symptomatology in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of intrafamilial sexual abuse*.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umatic Stress Studies, Boston, MA.
- Graham, J. R., Ben-Porath, Y. S., & McNulty, J. L. (1999). *MMPI-2 correlates for outpatient community mental health setting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ooper, M. L. (2007). The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and Family Systems Theory to the Phenomena of Parentification. *The Family Journal*, 15(3), 217 - 223.
- Jones, R., & Wells, M. (1996). An empirical study of parentification and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 145-152.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Philadelphia: Brunner/Mazel.
- Jurkovic, G. J. (1998). Destructive parentificat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In L. L. Abate(Ed), *Family psychopathology*(pp. 237-255). New York: Guilford.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Jurkovic, G. J.,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FRS-A)*. Unpublished document.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GA.
- Kaplan, P. H., Sadock, B. J., & Grebb, J. A. (1994).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 clinical psychiatry*. 7th ed. Williams & Wilkins.
- Karpel, M. (1967). Intrapsychic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the parenitfication of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 365(UMI No. 77-15090).
- Kelley, M. L., French, A., Bountress, K., Keefe, H. A., Schroeder, V., Steer, Kate, Fals-Stewart, W., & Gumienny, L. (2007). Parentification and family responsibility in the family of origin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ddictive Behaviors*, 32, 675-685.
- Kerig, P. K. (2005). *Implication of parent-child boundary dissolution for developmental psychology: "who is the parent and who is the child?."* New York: The Haworth Maltreatment and Trauma Press.
- Long, P. J. & Jackson, J. L. (1994). Childhood sexual abuse: An examination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2), 270-277.
- Marotta, S. A. (2002) An ecological view of attachment theory :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507-510.
- Marotta, S. A. (2003). Integrative systemic approaches to attachment-related trauma. In P. Erdman & T. Caffery (Eds.). *Attachment and family system: Conceptual, empirical, and therapeutic relatedness*(pp. 225-240). New York: Taylor & Francis.

- Mayseless, O., Bartholomew, K., Henderson, A., & Trinke, S. (2004). "I was more her mom than she was mine": Role reversal in a community sample. *Family Relations*, 53, 78-86.
- Merritt, R. D., Balogh, D. W. (1994). A comparison of the MMPI and the psychosis proneness scales in their classification of normals controls for use in schizophrenia spectru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2), 204-212.
- Mika, P., Bergner, R. M., & Baum, M. C. (1987).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parentification. *Family Therapy*, 14(3), 229-235.
- Minuchin, S., Montalvo, B., Guerney, B., Rosman, B., & Schumer, F. (1967). *Families of the slums*. New York: Basic Books.
- Moos, R. H. (2002). The mystery of human context and coping: An unraveling of clu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1), 67-88.
- Nichols, D. S. (2001). *Essentials of MMPI-2 Assess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Olson, M. & Gariti, P. (1993). Symbolic loss in horizontal relating: Defining the role of parentification in addictive/destructive relationship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5(3), 197-208.
- Paris J, Frank H. (1989). Perceptions of parental bounding in borderline patients. *Am J Psychiatry* 46, 1489-1499.
- Robinson, B. E. (1999). Workaholic children: One method of fulfilling the parentification role. In N. Chase (Ed.), *Burdened children*(pp.56-74). New York: Guilford.
- Stein, J. A., Riedel, M., & Rotheram-Boras, M. J. (1999). Parentification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children with ADIS. *Family Process*. 38(2). 193-208.
- Valleau, P. M., Bergner, R. M., & Horton, C. B (1995). Parentification and caretaker syndrome: An empirical investigation. *Family Therapy*, 22(3), 157-164.
- West, M. L., & Keller, A. E. (1991). Parentification of the child: A case study of Bowlby's compulsive care-giving attachment patter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5(3). 425-431.

The Effect of the Parentification of Children on Psychopathology

Woo, Ju-Young

Division of Rehabilit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It has been indicated that children's altruistic behaviors are very desirable ones. It has also been accepted that children's considerate behaviors towards their parents are really adaptable. However evidence is increasingly reported that when someone's internal desires are suppressed it can cause profound mental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see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f children on psychopathology.

Subjects consist of 314 university freshmen. They are divided normal population(236) and clinical population(78) by researchers and given MMPI test. Study instrument is originally devised by Jurkovic & Thirkield(1999)'s FRS-A(Filial Royalty Scoring-Adult) and revised by Kang Ji-Hee(2008) and Kim Young Hwan(1989) respectively. Correl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is employe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parentification(instrumental, emotional, unfairness) of children on psychopatholog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ows tha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s found in the normal group neurotically and psychopathically. Second, unfairness have an effect on children's psychopathic aspects in the clinical population. It shows a significant effect by Pa, Sc Scale in particular. This study seem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adaptive parent-child role because the parentification of children has an impact on the psychosis trait.

Key words: instrumental, emotional, unfairness, parentification, psychopathology

논문 접수: 2008. 8. 1 심사 시작: 2008. 8. 11 게재 확정: 2008. 9. 26